

내년 사업비 750억 소요 불구 169억만 예산 반영

목포대교 건설공사 차질 우려

공기지연 불가피... 신항 활성화 찬물

서해안고속도로 종점인 북항과 목포신항을 잇는 목포대교 건설공사 준공시기가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조갑도>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착공한 목포대교는 길이 4.15km, 폭20.4m로 국비 2천845억원이 투입돼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3년간 목포대교 건설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85억원에 그치고 있어 원활한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내년엔 필요한 사업비만 해도 75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턱없이 못미치는 169억원의 예산만 반영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이 같은 추세로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 목포대교가 당초 예정인 2011년도 19년이 더 늦어진 2030년이나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포대교 준공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대불산단 입주율이 75%를 넘어서고 오는 10월 국제 석재전시물류타운 개장과 함께 목포신항 물동량이 급증하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목포대교와 연결되는 목포신항에 P사와 L사 등 유명 건설회사가 1천482세대의 대단위아파트 분양을 시도했지만 목포대교 건설이 지지부진해지자 수익액 원대의 손실을 보면서 분양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이 좋은 사례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대교건설은 지역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라며 “국회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를 방문, 목포대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순창사랑 상품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음달 16일부터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인 ‘순창사랑 상품권’ <사진>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창군 내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두종류이며, 올해 1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연 30억원 정도를 발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및 상품권취급 금융기관 선정, 상품권 디자인 개발, 취급가맹점 모집 등 사전절차를 거친후, 다음달 16일부터 유통시켜 추서명절을 맞이하는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위변조 방지를 통한 상거래 질서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지역 단신/

무안 승달장학금 신청 25일 마감

무안군은 올 하반기에 41명에게 2천800만원의 ‘승달장학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선발분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해외유학생 외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해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승달장학금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현재까지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해외유학생 827명에게 4억 7천944만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까지 장학금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곡성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2억지원

농협 곡성군지부(지부장 안일섭)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올 상반기 1억 3천 800만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8천만원의 추가 지원키로 했다.

올해 2억1천800만원이 지원될 지원 사업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사계절 냉각시설 설치 ▲월하시 꽃감용 감 작목 식재지원 ▲친환경농업 쌀 생산지원 ▲고성능 광역살포기 구입 등이다.

안일섭 군 지부장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역농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총사업비를 지자체,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또는 수혜자인 농업인이 일정비율로 분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광양 저소득 모·부자가정 수련회



광양시는 최근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 12세대 30명을 선발, 제주도 일원 현장학습을 통한 한마음 수련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광양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 부모와 자녀 간 대화의 장 및 현장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한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 및 후원자를 발굴해 상호 연계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나주 소나무 도둑 기승

조경용으로 캐가·조사 착수

나주에서 조경수용 소나무 불법 굴취(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등 행정기관이 실태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23일 “나주 등 도내에서 개간과 수종갱신 등의 명목으로 불법 소나무 굴취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시군에 특별 실태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일부 시군에서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뒤 사후 관리가 미흡,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도 다도면과 동강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경수용 소나무 불법 굴취와 관련 2~3곳에 대한 현장조사와 확인작업 등 감사에 착수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체력 단련장 백일홍

처서(處暑)인 23일 무더위가 한풀 꺾이자 시민들이 백일홍이 만개한 순천시 동천변에 나와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국립청소년수련관’ 중복투자 논란

여수, 돌산 진도지구 700억 들여 2011년 완공 추진 화장동 전남학생교육회관·돌산 수련관과 용도 비슷

여수시가 돌산읍 진도 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수련관’이 중복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여수시는 오는 2011년까지 총 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7만 평 규모의 국립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뒤 시비 200억 원과 국비 500억 원을 들여 유스호스텔과 대강당, 생활관, 체육관, 야외공연장, 해양훈련장, 교육문화회관 등을

건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남도교육청이 화장동 1만여 평에 19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이나 Y기업이 여수시에 기부채납 목적으로 돌산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 원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인근 순천시 사면 운동장 일대 4만3천 평의 캄버리 야영장에 유스호스텔과 다목적 실내강당, 대 집회장, 숲 속

야영장, 수영장, 통나무집촌, 모험 놀이 시설건립을 마친 상태여서 광양관련 인접 자치단체 간의 동일목적 시설물 중복 투자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진도지구 ‘국립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유치될 경우 해양시설 등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설 부지가 그만큼 줄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중복투자는 지적이 있지만 청소년문화단지 야영장, 숙박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park@

“지력회복으로 돌산 갯 명성 유지해야”

여수농기센터

여수지역 대표적 특산물인 ‘돌산 갯’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수수, 기장 등 화본과작물을 심어 지력회복을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돌산갯 고유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 품질이 저하되는

여름철 갯 재배지에 대체작물을 심은 결과 산도, 유기물 등 대부분의 토양분석 항목 수치가 낮아져 지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돌산갯은 그동안 많게는 연간 5회에 이르는 다작 재배로 토양의 물리성 악화 등 장애를 가져오면서 본연의 맛을 잃어간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토양의 산성화, 염류 집적, 특정 병해충의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 고유의 맛 퇴색→가벼워하락→농가수입 감소 등의 악순환을 겪어왔다.

농업기술센터 김유근 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고품질의 돌산갯을 생산함으로써 명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생산량 조절로 농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돌산갯 주산단지에 시범사업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강승렬기자 kangsw@

광양커뮤니티센터 광양시가 직영

포스코복지회 위탁 내년 9월 만료따라



광양시는 포스코 복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던 광양커뮤니티센터(사진)의 운영만료시기가 내년 9월로 다가감에 따라 관리 및 운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양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기업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297억원을 들여 지난 2001년에 준공,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지역 최대 문화시설이다.

광양시는 관리·운영비 부담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 커뮤니티센터를 포스코 복지회에 맡겨 운영해왔으며, 내년 9월 위탁운영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물 조질로 농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돌산갯 주산단지에 시범사업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회가 운영하는 동안 항상 문제됐던 경영적자를 감안하면 광양시가 본격적으로 인수·운영하게 될 내년 9월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커뮤니티센터는 3천890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대·소회의장을 비롯, 실내수영장, 헬스클럽, 목욕탕, 레스토랑, 휴게실, 결혼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포스코 복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Happy Time' and '영화안네'.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원탁의천사' and '마이애미비이스'.

Advertisement for En Cinema listing movies like '원탁의천사' and '마이애미비이스'.

Advertisement for JoyCBS cinema listing movies like '마이애미비이스' and '콜롬버스 시네마'.

Advertisement for JoyCBS cinema listing movies like '마이애미비이스' and '콜롬버스 시네마'.

Advertisement for '씨너스 광주 8개관'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movie listings.